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는 불침번, 한강환경감시대

한강환경감시대(趙滋九 대장)가 발족한지 7개월이 되었다. 팔당댐 상수원유역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족된 한강감시대는 단속반원 40명에 공익근무요원 65명, 총 105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감시대는 지난 '90년 7월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상류지역 2,102km²과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로 이어지는 팔당하류 482km 등 총 2,584km를 감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내 5개 시(남양주·용인·이천·하남·구리)와 4개군 63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로 거대한 구역이다.

팔당댐 상수원의 총유입수는 하루 2,965만톤으로 이는 남한강 1,632만톤(55%), 북한강 1,286만톤

(43.4%), 경안천 47만톤(1.6%)을 합한 수치로 비교적 크다. 이와같이 팔당댐은 지리학적으로 3개강의 집수역할로 오염축적이 용이하며, 또한 이곳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등으로 '97년현재 513천명의 인구에 9,000개소의 숙박·음식점, 그리고 510여개에 이르는 많은 산업시설이 자리잡아, 환경오염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한강감시대의 탄생을 가져왔고, 감시대는 상수원 오염부하차단을 위해 감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강감시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24시간 감시체제 구축을 통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수질개선기획단, 한강수질검사소,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환경항공감시대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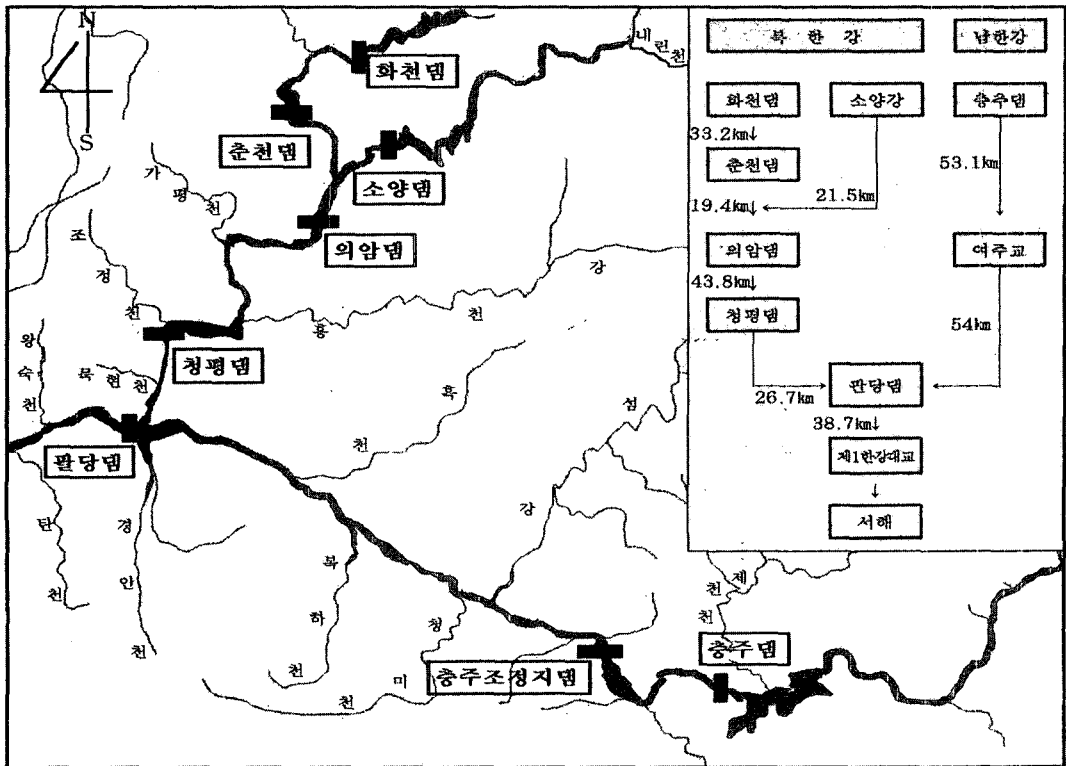


그림 1. 한강수계도

갖추고 각종 불법오염배출행위에 대하여 즉시 적발·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강감시대의 단속대상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 및 식품, 위생 분야등 직·간접적인 환경오염행위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적발된 오염행위자는 한강감시대에 전산처리화되고 일단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쳐 점검하는 체계를 가지므로써 또다시 오염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배출부과금이 오염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되었던 기존 사고방식을 깨는 것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강감시대의 감시활동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다. 단속요원의 근무자세에서부터 일반환경행정실무까지 전과정이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그리고 감시대장의 특별교육을 통해 세심하게 다듬어져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원리와 근거에 의한 설득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실제로 한강감시대는 팔당댐하류,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등 단속반을 3개반으로 나누고, 거점 초소 6개소(왕숙천, 경안천, 양수리, 청평댐, 흑천, 북하천)를 운영하면서 '98년 3월현재 총 2201건(환경 1680건, 건축 250건, 식품위생 271건)을 점검하였고, 그중 419건수(19%)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조치함으로써 전국상수원의 평균 적발률 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상수원 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은 물론 환경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한강수질을 검사하는 감시대원

이처럼 환경감시대의 발족은 한강수질의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데 그 역할이 비교적 적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강감시대는 그 역할비중 및 담당구역에 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환경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순수공무원은 40여명에 불과하고 장비또한 순찰·감시차량 9대 및 소형오토바이 6대로, 앞으로 수도권 2천만 식수원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담당요원 증원 및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한강감시대의 조직은 각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조직이다. 감시대 업무에 익숙해진 베테랑 대원일지라도 원소속기관에 복귀하고, 또다른 인원으로 재보충됨으로써 감시업무의 효율성에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상수도를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성이 부족한 비정규조직으로 운영하는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강감시대 조현구(趙滋九) 대장은 앞으로의 한강감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활성화된 감시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감시대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환경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조직화된『환경경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강감시대가 탄생한지 겨우 7개월이 되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거쳐가야할 당연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감시원의 감사로 제시된 팔당호 수질오염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강감시대의 능력을 이용하여, 깨끗한 팔당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는 감시대내 인력과 감시장비를 늘리고, 비정규조직을 정규조직화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오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화봉 기자〉